

생명나무

성경: 창 2:7-9, 계 2:4-5, 7, 22:2, 14, 고후 4:5, 5:14-15

I.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재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창 1:26-28, 31, 2:7-9)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이다(요 19:34, 롬 5:10, 계 22:1-2, 14, 19).

- A.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의 음식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동화시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사람 존재의 조성 성분 자체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시사한다 — 골 2:9, 창 2:9, 요 1:4, 10:10, 14:6, 15:1, 6:35, 57, 63, 고전 15:45하.
- B.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계 22:2, 14).

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 갈 1:16, 2:20, 4:19, 빌 1:19-21, 엡 4:13, 고후 3:18.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 영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B.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둘째 문제는 위선이다 — 마 6:2, 5, 7:5, 23:13-29.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방해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된다.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 C.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셋째 문제는 반역이다.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신다.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자 우리가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거나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 — 롬 8:6, 요일 2:27.
- D.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을 떨치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 E.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 마 16:24-25.

Ⅲ.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 A.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계 2:7, 요 6:57, 63.
- B.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계 2:4-5.
- C. 한 면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장차 올 천년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특별한 누림을 가리킨다.
- D. 또 다른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곧 공급된 음식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미리 맛보며 누리고 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 E.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온종일 계속해서 먹을 때,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
- F. “오늘날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분명 왕국 시대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오늘날 애너하임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 활력 그룹, 개정판, 11장, 179쪽.

- G. 교회가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복원과 부흥이 있다 — 시 80:17-19.
- H.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도 반드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고후 4:5, 비교 히 1:3, 8:1, 12:2, 시 80:1, 17-19, 110:1-7.
1. 우리의 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이끌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게 해 드려야 한다 — 비교 아 1:1-4, 사 6:1, 3, 요 12:41.
 2.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다 — 고후 4:10-13, 요 12:24-26, 비교 눅 12:49-50.
 3. “잘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능가하고, 하늘의 미소 짓는 얼굴은 땅의 모든 화난 얼굴을 능가하며,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능가한다 — 마 25:21, 23, 렘 1:7-9, 18-19, 단 4:26.
- I.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애정 어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온 존재를 체험하고 누린 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쓸 준비가 될 것이다 — 시 45:1-2, 고후 3:3, 6.
- J.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성(우리를 붙잡아 주는 중심)과 우리의 전부(우리의 모든 것)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 골 1:17하, 18하.
- K.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여호와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 시 27:4, 수 9:14, 빌 4:6-7.
- L.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포로가 되어 “주님,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를 패배시키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에 주의하는 것이다 — 고후 2:13-14.
- M.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의 청옥 보좌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한 것, 즉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 겔 1:22, 26.

- N.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권을 돕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인데,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사 42:1-4).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과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기억되고 민족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시 45:16-17, 계 2:26).
- O.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교두보로서, 주님은 이들을 통해 온 땅을 소유하시러 돌아오실 것이다 — 시 48:2, 단 2:34-35.
- P.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러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 가시리라. /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 …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만군의 여호와 /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 시 24:7-8, 10.
1. 성문들은 민족들의 성에 있는 것이고, 문들은 백성의 집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학 2:7)이시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관념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다(벧후 3:8-9). 따라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래 견디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
 2. 영광의 왕은 만군(곧 군대들)의 여호와, 즉 승리하시고 계속 이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 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눅 21:27, 마 25:31).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싸움에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마 1:21, 계 5:5).
 3.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시어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실 분이시다 — 단 2:34-35, 7:13-14, 욥 3:11, 계 11:15, 19:13-14.
- Q.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빛깔이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색인) 홍옥수와 (그 빛깔이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인) 벽옥 같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온 존재를 받는 수혜자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 계 4:3, 21:10-11상, 롬 5:10.
- R.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에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누릴 권리를 갖는다 — 계 22:14, 2:7.